

수 있었다.

결 과 : 경부림프절 절제술 후 병리학적으로 경부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28.8%였고, 가장 호발 부위는 level II였다. 전체 재발율은 26.9%였고 국소재발이 13.5%, 림프절 재발이 7.7%, 원격전이율이 5.8%였다. 5년 무병 생존율은 70.9%였고 전체 생존율은 73.8%였다.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안면신경마비 유무, 병기, 경부림프절전이 유무, 방사선 선량등이었다.

결 론 : 향후 병리조직학적 유형에 따라 재발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경부림프절 제거술이 경부림프절로의 전이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며 만약 림프절로의 전이가 확인된 경우라면 광범위한 경부림프절 방사선치료를 하여 경부림프절 재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다발성 Warthin씨 종양

최종욱 · 임재신 · 주은정*¹⁾
김우정 · 주형로 · 최 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대전선병원 이비인후과¹⁾

배 경 : Warthin씨 종양은 이하선에 주로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혼합종에 이어 두번째로 많으며 전체 이하선 종양의 15% 내외를 차지한다. 이하선내에 다발성 병소로 나타나고 재발이 가능하므로 술전과 술중에 정확한 병소의 위치 확인과 적절한 절제술이 요구된다.

목 적 : 저자들은 Warthin씨 종양의 다발성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수술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3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Warthin씨 종양으로 진단받고 본원에서 수술받은 20례의 환자를 발생부위, 다발성 유무, 수술방법과 재발의 연관성에 대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환자 중 남자가 16례, 여자가 4례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3.6세 이었고 연령분포는 27~68세 이었다.

결 과 : 이하선에 발생한 Warthin씨 종양은 일측 단병소성이 14례, 일측 다병소성이 3례, 양측 단병소성이 2례, 양측 다병소성이 1례이었다. 총 20례중 4례가 다발성으로 발생하였으며, 이 중 3례는 동측, 1례는 양측에 발생하였다. 3례에서는 자기공명영상으로 다발성 병소를 관찰하였다. 수술방법은 일측 단병소성 11례와 양측 단병소성 1례는 일측 종양적출술(enucleation), 일측 단병소성중 3례, 양측 단병소성 1례, 양측 다병소성 2례는 천엽절제술(superficial parotidectomy)을 시행하였다. 일측다병소성 1례와 양측다병소성 1례는 전절제술(total parotidectomy)을 시행하였다. 양측성중 일측만 수술한 2례에서 반대측 종물은 크기의 증가나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하선내 임파선은 모든 예에서 반응성 비대소견을 보였고, 임파선내 Warthin씨 종양은 3례에서 관찰되었다. 평균추적관찰기간은 3년 3개월이었고, 모든 예에서 술 후 안면신경마비와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 론 : Warthin씨 종양은 다발성과 양측성의 발현양상이 높아 술전과 술중에 정확한 병소확인이 필요하며, 다병소성에 따른 종양의 적절한 수술적 제거로 재발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20

이하선 선양낭성암종의 자연경과 1례

최종욱 · 전병선* · 오준환
주형로 · 정광윤 · 최 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저자들은 좌측 이하선에 22년간 지속된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여 조직검사결과 선양낭성암종으로 확인된 66세 여자 환자가 내원후 6개월째 폐전이 및 악액질로 특별한 치료없이 유병사망하여 선양낭성암종의 자연경과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선양낭성암종(adenoid cystic carcinoma)은 두경부악성종양의 약 3.8%를 차지하고 타액선 악성종양의 40%를 차지한다. 호발하는 연령은 50~60대이며, 남녀비의 차이는 없다. 주로 두경부에 분포되어 있는 타액선에서 발생하지만

그 외에 타액선이 아닌 상기도의 점액선, 누선, 외이도의 피지선 등에서도 발생하며, 드물게는 자궁경부, 음문, Bartholin's gland, 유방, 식도, 그리고 피부 등에서도 발생한다. 선양낭성암종은 성장속도가 극히 완만하여 진단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임상적 발현 기간은 1개월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이 경과되고 진단까지의 평균 기간은 5.6년이다. 이것은 선양낭성암종이 임상적으로 특이할 만한 증후나 증상이 없고 궤양을 잘 일으키지 않으며 점막하 종괴로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증상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느린 성장

을 보이면서 점막하 조직, 또는 신경초 조직을 타고 서서히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종양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완전한 외과적 절제 후에도 장기추적 결과 국소재발률이 30~50%나 되며, 원격전이도 25~50%로 드물지 않고 일부의 예에서는 대단히 빠른 임상경과를 취하기도 하여 두경부 종양 중에서도 완치가 어려운 악성종양 중 하나이다. 따라서 타액선의 가장 많은 악성종양인 선양낭성암종의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이 암종에 대한 자연경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